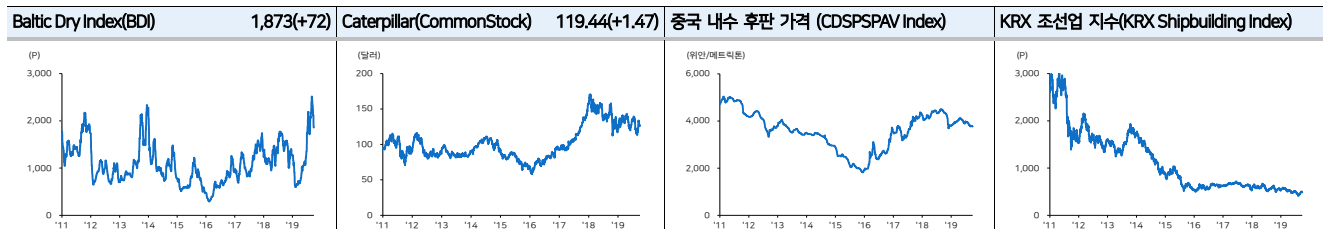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	19E	18	19E	18	19E
한국조선해양	8,917.4	16.7	126,000	3.3	5.0	11.5	-1.9	87.8	42.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618.9	20.2	345,000	1.6	0.4	5.0	-0.3	4.6	3.9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17.8	6.0	10,700	1.9	-25.4	-35.0	-51.8	1.0	0.9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597.9	11.5	30,350	2.5	-4.6	-18.6	-28.9	1.9	1.4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5,033.7	19.5	7,990	2.8	-1.4	5.1	7.8	50.4	25.0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248.3	12.8	30,300	2.5	0.8	-3.8	-11.3	10.6	7.8	0.9	0.8	9.0	9.8
현대미포조선	1,865.3	14.7	46,700	6.9	3.8	1.4	-22.2	10.1	7.3	0.4	0.3	3.6	4.8
한진중공업	383.5	20.9	4,605	2.8	-3.6	-16.9	-44.4	92.6	23.1	0.7	0.6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54.2	22.0	79,200	1.3	-7.0	-4.7	-26.0	14.0	13.6	1.9	1.7	14.6	13.3
두산밥캣	3,248.1	26.8	32,400	-2.1	-11.6	-8.9	4.6	11.9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1,568.3	4.5	18,450	3.7	-0.8	-3.9	-33.8	23.8	16.2	1.1	1.0	4.5	6.3
하이룩코리아	239.6	46.8	17,600	0.0	2.9	0.9	7.0	8.0	7.3	0.7	0.6	8.8	9.0
성광벤드	307.5	19.9	10,750	0.0	3.4	4.4	-5.7	950.3	38.5	0.7	0.7	0.1	1.8
태광	276.9	12.7	10,450	0.5	-5.0	5.9	-10.7	62.4	30.5	0.7	0.6	1.0	2.1
두산중공업	1,297.8	11.6	6,420	0.9	3.5	7.4	-23.5	-19.3	21.6	0.3	0.4	-0.1	1.6
두산인프라코어	1,259.4	16.7	6,050	0.7	-4.3	5.2	-20.3	4.1	4.3	0.7	0.6	17.7	13.9
HSD엔진	104.4	3.4	3,170	1.3	-7.6	-7.3	-40.0	-8.3	-4.7	0.4	0.5	-4.7	-7.4
한국항공우주산업	3,782.0	21.7	38,800	0.4	-6.8	15.1	21.6	56.6	17.8	3.4	3.1	6.1	1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81.0	22.6	42,300	4.4	-0.6	38.2	30.2	175.3	22.7	0.9	0.9	0.6	4.1
LG넥스원	766.7	6.1	34,850	0.3	3.9	23.4	-5.7	80.2	N/A	1.6	N/A	2.4	2.4
태웅	195.5	4.7	9,770	2.5	-5.1	-0.9	-7.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95.5	7.8	10,950	4.8	18.6	22.3	41.8	-23.1	16.2	4.0	3.2	-16.2	23.2
한국카본	383.8	13.1	8,730	3.1	10.6	5.8	24.0	136.0	28.6	1.3	1.2	0.9	4.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astern Pacific inks \$1.5bn Hyundai dual-fuel boxship deal

현대중공업이 Eastern Pacific에 15,0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11척 수주했다고 보도됨. 납기는 22년부터 시작될 예정. TradeWinds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지난 컨테이너선 건조계약의 옵션분. 참고로 지난번 계약은 2017년에 현대삼호중공업이 LNG추진 컨테이너선 7척, 스크러버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한 계약. (TradeWinds)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삼성중공업 6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대만의 해운사인 에버그린(Evergreen)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등을 탑재할 예정이며 최대 7%의 연료 절감효과 있다고 보도됨. 인도는 2022년 예정이고 적당선가는 1억5,300만달러로 전체 계약 규모는 9억2,000만달러(1조1000억원). (조선일보)

후판 가격 놓고...골 깊어지는 철강-조선

철강 업계와 조선 업계는 지난 7월부터 하반기 후판가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함. 철강업체들이 톤당 3만~4만원 가격 인상 방침을 전하자 조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철강 업체는 앞서 '철강 업계와 후판가를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조선업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부인함. (서울경제)

Fredriksen's Northern Drilling cancels DSME drillship

대우조선해양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드릴십의 Resale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Fredriksen's Seadrill이 발주했다가 계약 취소 했던 선박으로, Fredriksen's Northern Drilling과 Resale 계약을 체결했던 선박. Northern은 이미 지급한 선수금 4,920만 달러와 이자 및 손실금액에 대해 반환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TradeWinds)

힘 합친 한국 해운, 카타르 도하서 LNG 수주 노린다

한국 해운선사들이 카타르가 발주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운송 계약 수주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보도됨. 선박 건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가 유력하다고 보도됨. (이데일리)

현대삼호중, 강제 상환조건 사모채 발행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4일 신용등급 하락시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강제 특약이 걸린 2년물 회사채 500억원어치를 발행함. 표면이율(쿠폰금리)은 연 3.850%로 정해졌으며, 연초 사모채 발행 당시 금리가 4.30~4.50%였던 것과 비교하면 45~65bp(1bp=0.01%포인트)의 이자 비용을 낮춤. (파이낸셜뉴스)